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메시지

성경말씀: 합2:1-4

- 요즘 세상이 심히 불안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김정은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식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한 위협이기에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다.
1.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달 동안 10번의 미사일 발사(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9월 3일 수소폭탄), “미국 대상이지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800만 달러 지원”
지난 20년 동안 국가와 민간인들이 퍼준 현금과 현물이 약 70억 달러. 현시세로 10조 이상 1948년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힘으로는 풀어야 풀 수 없는 일, 암울하다
 2. 지난 몇 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청문회, 1968년생(만49세), 포항공대 교수 자격논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1. 성경대로 6,000년 창조를 믿는다(창세기 믿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
 2.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3. 촛불 집회에 안 나갔다. 기독교인에게는 상당한 충격
 3. 김명수 대법원장: 열렬한 동성애 옹호론자, 군에도 동성애 허용 논란, 친이슬람, 모든 신문에 게재될 말 그대로 세상이 온통 썩대밭이다. 앞으로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배경 설명

- 남왕국 유다의 패망 바로 직전인 BC610-620년경,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대언자, 3장의 대언서 기록 대언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받아 선포하는 것, 이 책은 하나님과 대언자의 대화 다윗 이후 패망까지 2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몇 명을 빼고는 다 사악하고 우상숭배 합 폭력으로 인한 대언자의 탄식(2), 백성이 도처에서 피폐하게 되어 울부짖음(3), 가는 곳마다 압제 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서지 않음(4), 사법부의 편향과 독재
- 이런 가운데 대언자의 마음속에 큰 의심이 생김
- 그 당시 온 세상은 바빌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먹힘, 바빌론 사람들은 보통 사악한 사람들이 아님
1. 모질고 사악하다(6), 2. 그들의 군대는 빠르다(8), 3.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러 온다(9), 4. 모든 왕들과 국가들이 꿈쩍 못하고 먹힌다(10)
- 그의 마음속 문제?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사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가?”
- 하박국의 탄식(12), “주님은 거룩한 분인데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드십니까?”(13)
-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유다 땅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 “어느 때까지 이들이 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하도록 그대로 두시렵니까?”(17)
-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 주신 이 나라가 어찌하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 동성애 합법화, 중학교 학생들의 무자비한 폭력, 살인 만연, 김정은의 핵폭탄 위협,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리버럴, 반기독교, 반 하나님, 반 기업, 전교조/민노총 지지 법관들이 자기의 이념적 성향으로 판결을 내리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은 오직 사실에 기초해서 법대로 판결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그 결과 가장 서유 매장량이 많은데 쓰레기통을 뒤져 굶주림을 면하려고 국민이 난리, 지금 우리나라 역시 풍전등화
-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개의 신앙고백을 만들어 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성경 편 1장 8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1. 모든 성경기록(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2.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아 본문을 만든 뒤 거기서 직역하여 번역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3.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각별한 보호와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셨다.

다수 사본에서 여러 나라의 성경들이 나왔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 체코 등 1600년 대 이후로 세상은 영어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성경 역본 중에서 영어로 된 1611년 KJB는 독보적인 성경이 되었다.

지난 400년 이상 모든 교리, 강해, 설교, 신조의 근간, 전 세계 복음화, 반 카톨릭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되고 판매되고 번역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경 중에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왜곡해서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 나왔다.

1. 말씀보존학회와 똑 같다. 2.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3.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역사의 사실: 1. 우리는 말씀보존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2. 나와 내 부모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다. 3.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 아니다.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한 아름다운 성경이다. 다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몇 가지 명백한 오역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신천지, 베뢰아 등의 이단들이 생긴다. 이 점은 교정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으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애국하며 살려고 하는데 악한 시도로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현실이 심히 답답하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2:1-4)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이야기하였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물었다. 그리고는 파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2:1).

주님의 대답: 1. 내가 답을 줄 텐데 분명하게 기록해서 남겨 두라(2). 2. 이것을 읽는 자가 주의 공정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달음질쳐서 도망하게 해라. 이때는 심판의 때이다(마24:16).

3. 이 계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맨 마지막 때 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3).

4. 지금은 폭력이 득세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명예를 얻으며 압제하는 자들이 잘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12-14). 주의 날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 우상숭배자들이 망한다(19).

5. 온 땅이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가 온다(20).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새 하늘과 새 땅

요점은 무엇이나?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4).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잘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4).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다만 의인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합2:4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롬1:17; 갈3:11; 히10:38), 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러나 합2:4와 히10:38의 이 말씀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함.

무슨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교황

No!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보는 것으로 견지 않는다(고후5:7).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직업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사망, 이혼, 자식들의 속 썩임, 성경 신자들의 핍박,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줄 믿어야 한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비록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북한 핵문제, 사법 정의 문제, 동성애, 종북 세력들의 확장, 극도의 폭력, 암울해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 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내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성경을 통해

결론(3:17-19)